



KB금융, 다문화가정 아동 진로탐색 캠프
KB금융그룹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다문화 가정 아동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KB레인보우사랑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로탐색을 테마로 진행됐으며, 50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해 보며 장래 희망의 꿈을 키워가는 기회를 가졌다. /KB금융



NH협카드, 흑서기 맞아 취약계층 나눔행사
NH협카드는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흑서기 복지용품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인기 NH협카드사장(가운데), 김덕수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총장(왼쪽에서 세 번째), 탁우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협카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주류, '애착인형 만들기' 봉사활동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주류 사ות봉사단이 '애착인형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애착인형 만들기 봉사활동은 롯데지주의 'mom(맘)편한 예비맘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완성된 인형 약 100여개는 소외계층 산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주류



세븐일레븐,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백만 프로젝트' 후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8일 오전 제주도에서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제주도 자전거 중추 '백만 프로젝트'에 참가해 물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과자, 간식, 생수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중심으로 후원 물품을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규환 세븐일레븐 마케팅팀장, 고재춘 승일희망재단 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에쓰오일, 보육원 청소년들에 3.3억 장학금

선덕원에 드림 장학금 전달
에쓰오일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중 화학공학, 기계, 전기·전자 등 이공계 전공 학생 60명에게 각각 2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에쓰오일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75명에게도 중장비·컴퓨터·미용·제과제빵 등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 습득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비 200만원씩을 전달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지독한 입 냄새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양치질을 아무리 자주, 깨끗이 해도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구강건강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구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입 냄새(구취)'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취는 주로 흡연, 음주, 충치, 치주염, 구강건조, 소화기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구강상태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취가 심하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줘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적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입 냄새가 나도 정작 본인은 모르고 지나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입 안에서 단백질이 부패한 냄새가 난다거나 잇몸이 붓는 증상, 칫솔질을 할 때 이가 시리고 피가 자주 난다면 가까운 치과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때 입 냄새가 심하지 않다면 껌이나 캔디, 구강청정제, 구강 전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들 제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아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경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금이 간 치아 사이로 세균이 자라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만으로도 완화된 수 있지만, 염증이 잇몸을 넘어 치조골까지 진행되었다면 잇몸을 절개한 후 염증 부위를 긁어내야 한다.

흔히 풍치라고도 불리는 치주질환은

초기나 중기까지 통증이 거의 없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입 냄새가 심한 편이거나 이가 시리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입 냄새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칫솔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치과 정기 검진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는 필수이며, 특히 칫솔질을 할 때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거나 칫솔모를 양옆으로 비빌 경우 치아표면이 마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아래 방향으로 칫솔질을 해야 하고, 하루 한 번 칫솔 및 치실을 이용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주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 및 치태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치과 스케일링을 받아야 잇몸 질환 예방은 물론 구강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민을산치과 원장

군수산업 '바이 코리아'로 살릴수 있을까



문형철
국방기자 칼럼

일본의 전략물자 한국수출금지 조치와 맞물려 국방분야 국산화, 중소기업 육성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바이 코리아(BUY KOREA-국산구매)'가 군수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방부는 국방분야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요지는 피복 및 개인 장구류 등 전력지원물자와 부대 상용물자를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사시 안정적인 군수지원 등을 생각하면, 군수관련 소재와 제품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국방예산이 천조원에 달한다고 해서 '천조국(千兆國)'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국방분야에 사용되는 소재와 제품을 자국산으로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펼치

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도 국방예산에 대한 부담때문에 100% 국산화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미군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미국도 예산범위에서 '엔드유저(사용자)'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도 안정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한 조달 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고민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국산화, 국내 기업,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일까. 최저가 입찰과 과도한 구매요구도에 시달리는 군수관련 업체들은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만 잘 구비하고 있으면 군을 상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 같다. 업계 일각에서 '바이 코리아'의 근본적인 실효를 생각치 못한다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국군 장병들이 입는 야전상의(야상)의 원단을 100% 일본 자본으로 이뤄진 한국소재기업에서 납품하고 있다면, 이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까.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야상 원단을 공급한 T사는 100% 일본자본 기

업으로 모회사는 일본 미즈이 그룹의 계열사인 도레이다. 지난 5월 T사의 한국 모회사 대표는 일본 정부로부터 경제발전 기여가 큰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육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받았다.

관련 원단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격경쟁력이라는 무기를 내세운 중국업체의 위협에 안방을 잃을 위기인데 외국계 기업에게도 자리를 뺏기는 현실이다. 국법이 국밥같아도 지켜야 된다지만,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멍이 많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제법 등 관련 절차는 적법했다. 현행 법상 업체의 지분관계 등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업체 육성, 국산화의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반면, 자본이 아니라 원자재 또는 부품이 중국산인 경우도 있다. 모든 중국 제품을 평가절하해 볼 문제는 아니지만, 안정적 군수지원과 검증된 성능을 갖춘 정품이 아닌 짝퉁이 군에 보급되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captinm@metroseoul.co.kr

삼성물산 빈폴스포츠, 기부 티셔츠 판매

OMC와 나눔실천 캠페인 전개

삼성물산 패션부문 브랜드 빈폴스포츠는 비영리 캠페인 단체 원마일클로저(OMC)와 함께 작은 도전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 5월 스포츠 시장 성장에 따른 사업 강화 차원에서 비영리 캠페인 단체 OM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빈폴스포츠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OMC의 라이딩을 지원하

고, OMC 파운더이자 모험가인 제임스 후퍼의 인생 철학을 담은 기부 티셔츠를 출시했다. 기부 티셔츠는 9~15일까지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통합 온라인몰 SSF샵을 통해 판매되며, 16일부터는 빈폴스포츠 전국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모델인 옹성우, 전소미의 포토카드, 플라로이드 사진과 함께 두 모델의 손 편지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부음

▲ 송택순씨 별세, 박영식씨 남편상, 송영만·희경·희진씨 부친상, 조일호·차문현(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씨 장인상 = 7일 오후 7시,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20분. (02-3779-1918)

▲ 최진우씨 별세, 최성운씨 부친상, 유병진(명지대 총장)씨 장인상 = 7일 오전 6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258-5940)

▲ 정금복수산나씨 별세, 황성길(당산서중교장)씨 모친상 = 7일 오후,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9호, 발인 9일 오전 7시.